

# 기후동행카드 3만원 환급... 서울시, 1조4570억 추경 편성

소상공인 금융지원 규모 3조로 확대  
서울사랑상품권 발행도 2배 늘려  
대중교통 활성화 등 체질개선 추진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에게 3개월간 매달 3만원을 돌려주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4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아 서울시가 1조 4570억원 규모 추경안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1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한다고 14일 밝혔다. 추경 규모는 기정예산 51조4857억원 대비 2.8%에 달하는 1조4570억원으로 원안 통과시 올해 서울시 예산은 52조9427억원이 된다.

◆ **피해기업 밀착지원 1202억원**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3무(무보증·무담보·무방문) 위기대응자금 등을 포함해 금융지원 규모를 기존 2조

7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 경영 컨설팅과 디지털 전환, 폐업·재기 지원 등 현장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도 함께 강화한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1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 오프라인 상품권 1000억원, 온라인 전용 상품권 500억원을 추가 발행하고 환급지원도 병행한다. 또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이 약 125곳을 대상으로 집중 할인행사를 새로 지

원해 지역 상권으로 소비가 유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자영업클리닉 지원 인원은 기존 1600명에서 3000명으로, 디지털 정착을 돕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지원은 400명에서 500명으로, 채도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폐업지원은 4000명에서 4500명으로 각각 확대된다.

고유가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 운송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 **'대중교통 유도' 4976억원**  
서울시는 고유가대응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친환경차 전환, 피해계층 지원, 자치구 재정 보강 등을 담은 4976억원 규모 체질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시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기후동행카드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30일권 이용자에게 3만원 페이백을 적용해 월 3만원 수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K-패스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정물형·정액형 상품에 약 50% 한시 할인을 적용한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도 확대해 연간 지원 규모를 166만명에서 169만명으로 늘리고, 서울교통공사와 시내버스 운영기관에는 각각 1000억원씩 총 2000억원을 지원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한다.

내연차량의 친환경 전환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저상 마을버스 8대를 전환하고, 고상 전세 버스는 기존 35대에서 62대로 늘린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1529억**  
서울시는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1529억원 규모의 서울시 부담분을 편성했다. 해당 사업은 국고보조를 70%가 적용되며, 전체 사업비 가운데 서울시가 18%, 자치구가 12%를 각각 부담하는 구조다. 지원은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에는 45만원을 우선 지원하고, 2차로는 1차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 시민에게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3530억원 규모의 자치구 조정교부금도 선제 지원한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추경은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는 동시에, 위기 이후를 내다보는 전환의 토대를 함께 놓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학교 내 도서관·수영장, 주민과 함께 쓴다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5건 선정  
총 483억 지원... 농산어촌 우대

교육부가 2026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 사업 5건을 모두 선정하고 총 483억원을 지원한다. 학교 안팎에 교육·체육·문화·복지 기능을 결합한 복합공간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과 농산어촌에는 우대 지원을 적용해 지역 맞춤형 교육·정주 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4일 '2026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교육청·학교·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학교나 폐교 부지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체육·문화·복지·평생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1차 공모에는 4개 교육청에서 5개 사업이 신청됐으며, 신청 사업 5건이 모두 선정됐다. 교육부는 총사업비 879억원 가운데 55%인 48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 사업을 보면 대전 서구에서는 대전성천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조성 사업이 포함됐다. 이곳에는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을 중심으로 돌봄교실, 커뮤니티 센터, 체육관, 주차장, 야외책놀이터가 들어선다. 충남 천안시에서는 충남예술고등학교 예술복합공간 건립 사업이 선정돼 공연예술복합공간과 야외무대, 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경기 성남시 삼평중학교 부지에는 수영장과 도서관, 문화센터, 지하주차장을 갖춘 학교복합시설이 들어선다. 경기의

정부시 고산초등학교에는 다목적실과 강의실, 창작실, 세미나실 등을 포함한 웰니스 센터가 조성된다. 광주 광산구 광일고등학교에는 소공연장, 메이커스 페이스, 공유카페, 피트니스, GX룸, e-스포츠실, VR체험실, 평생교육실 등을 갖춘 학교복합시설이 마련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역에서 학생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역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이나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2차 공모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이 다수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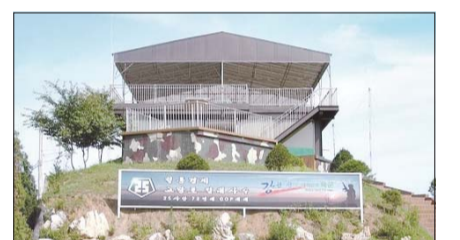
## 오는 17일 'DMZ 평화의길 테마노선' 개방

연천군, 10월 31일까지 운영

연천군은 오는 17일부터 장남면 고랑포리 일대의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코스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이하 테마노선)은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점령지역에 조성돼 방문객이 평화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안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

연천군의 테마노선은 민간인 통제구역 내 1.21 무장 공비 침투로부터 1.8km의 철책 구간을 걸으며 비무장지대를 관람하고 버스를 이용해 연천 호로고루 사적을 방문하는 코스로 전문 관광 해설사가 동행해 분단의 역사, 지역의 이야기 등을 들을 수 있다. 운영 기간은 4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금·토·일 주3회, 하루 2회(오전·오후) 운영하며, 휴서기인 7~8월은 운영하지 않는다.



연천군이 오는 17일부터 장남면 고랑포리 일대의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코스를 개방한다. /연천군

투어 신청은 한국관광공사 두루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문객은 연천역에서 출발하는 투어버스 이용이 가능하며, 자차를 이용하는 방문객은 고랑포역사공원 인근 안내소에서 투어버스에 탑승해 코스를 진행하게 된다.군은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10일 시범운영을 마쳤으며, 방문객 동선 점검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조치등을 관리할 예정이다.

/연천(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 '경기 기후보험' 개편... 진단비 인상·사망위로금 신설

기후위기 인한 의료비 부담 완화

경기도가 진단비를 최대 두 배 인상하고 사망위로금을 신설하는 등 보장 혜택을 대폭 강화한 '2026년 경기 기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후위기로 인한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대비 보장 금액 인상과 신규 항목 추가가 핵심이다.

먼저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 진단비는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0% 인상됐으며, 감염병 진단비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상향됐다.

또한 중증 기후 피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망 시 300만 원의 위로금이 신설됐고,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지급 항목도 새롭게 추가됐다. 폭염·폭우·폭설 등 기후특보 발효 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일정 기준 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기후재해 사고위로금도 지원된다.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됐다. 기존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약 15만 명에 더해 올해부터 임신부 약 7만 명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총 22만 명의 기후취약계층이

완화된 진단 기준과 추가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경기 기후보험은 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된다. 또한 보험금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청구지원 서비스, 모바일 메신저 기반 간편 청구, 전담 콜센터 운영 등 청구 시스템도 전면 개선했다.

올해 사업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대표로 한 공동수급체와의 계약을 통해 운영되며, 보장 기간은 2026년 4월 10일까지 1년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오늘의 날씨** 4월 15일 (수) 음력 : 2월 28일

수도권 날씨: 12~25°C

운동 지수: [진행도]

빨래 지수: [진행도]

세차 지수: [진행도]

외출 지수: [진행도]

전국 날씨 지도: 연천 9/25, 동두천 10/25, 가평 9/25, 양평 10/25, 용인 11/24, 평택 10/25, 파주 10/25, 인천 11/23, 수원 11/24, 백령도 9/12, 서울 12/2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美, 기름 더 팔지만 가격은 오른다"...트럼프 호르무즈 봉쇄의 역설 /사진 뉴스  
▲ 중국 3월 수출 증가율 2.5%로 "둔화"...중동전쟁 충격에 시 수요 효과 상쇄

▲ "EU, 中 철강 저가 공세에 관세 50% 인상키로"  
▲ 트럼프, 주한미국대사로 한국계 정치인 미셸 스틸 지명

▲ 이란 "호르무즈는 우리 영해...통행 메커니즘 제공할 것"  
▲ 헝가리 총리 당선인, 우크라이나 대출 거부권 철회 시사... "러 에너지 계속 수입"